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대 다화(茶畵)를 통해본 음다도구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혜 인

# 명대 다화(茶畵)를 통해본 음다도구 연구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혜 인

# 인 준 서

이혜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명대(明代)에 그려진 다화를 토대로 하여 명대 음다도구의 종류와 형태, 특징을 살펴보고, 음다법, 음다장소, 차와 악, 음다인물 등의 분석을 통해 차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대해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한 다화는 명대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沈周, 唐寅, 文徵明, 仇英 등 47인의 작품이었다. 다화가 실린 서적과 다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122점의 다화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대 음다도구와 음다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음다도구의 종류는 크게 차를 마시기 위한 음다도구와 차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다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별 선호하는 찻잔의 크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잔의 형태는 현재의 찻잔의 형태와 비슷하나 잡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용성 위주의 차탁과 손잡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자사호가 명대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풍로가 존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개완의 용도가 차를 우리기 위함보다 찻잔의 용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풍로·연·수방 등 차를 마시기 위한 다양한 준비다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덟째, 명대의 음다방법은 차를 우려마시는 포다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차를 마시는 공간은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없었으며 산수가 있는 곳에서 차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열째, 차를 마실 때 악이 함께 존재해 분위기 자체가 밝았음을 볼 수 있다. 열한째, 차를 마시는 인물의 성별과 신분에 제한이 없음을 볼 수 있었다.

차는 오랜 시간 동양문화의 중심에서 문화적 발달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서면서 서양적 가치가 중심이 된 생활환경에서는 과거보다 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동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지금, 동양적 사상의 중심에 함께해 온 차, 그리고 차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현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발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차문화가 재조명받고 있는 이 때 특정계층 또는 특정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하나로써 차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발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차의 역사성, 형식성, 문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b>II. 이론적 배경</b> .....	<b>10</b>
1. 명대의 음다문화의 배경 .....	10
2. 다화에 나타난 음다도구 .....	14
3. 선행연구 .....	17
<b>III. 명대 다화에 나타난 음다도구</b> .....	<b>19</b>
1. 음다도구의 종류와 형태 .....	19
2. 음다도구의 특징 .....	49
<b>IV. 명대 다화에 나타난 음다법</b> .....	<b>53</b>
1. 음다법 .....	53
2. 음다장소 .....	58
3. 차와 악 .....	65
4. 음다인물 .....	70
<b>IV. 결론</b> .....	<b>77</b>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명대 작가별 다화	4
<표 2> 명대 제다방법	12
<표 3> 명대 각 성 화가 수 및 밀집도	15
<표 4> 차탁의 유무	21
<표 5> 찻잔의 크기와 색깔	27
<표 6> 손잡이의 유무	30
<표 7> 자사호와 호 구분	37
<표 8> 풍로의 형태	42
<표 9> 기타다구	48
<표 10> 명대 음다법	55
<표 11> 음다장소	62
<표 12> 악이 있는 다화	67
<표 13> 성별 및 신분	73

## 그림 목 차

<그림 1> 명대 서화가 분포도	16
<그림 2> 沈周, 졸수암(拙修庵)	20
<그림 3> 唐寅, 전다도(煎茶圖)	20
<그림 4> 錢穀,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20
<그림 5>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20
<그림 6> 佚名, 자다도(煮茶圖)	21
<그림 7> 佚名, 품다도(品茶圖)	25
<그림 8>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25
<그림 9> 陳洪綬, 보천(譜泉)	25
<그림 10> 陳洪綬, 품다도(品茶圖)	25
<그림 11> 黃卷, 희춘도(嬉春圖)	26
<그림 12> 오늘날 찻잔을 잡는 형태	26
<그림 13>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29
<그림 14>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29
<그림 15> 尤求, 품고도(品古圖)	29
<그림 16>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29
<그림 17>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30
<그림 18>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33
<그림 19> 王問, 자다도(煮茶圖)	33
<그림 20> 黃卷, 희춘도(嬉春圖)	33
<그림 21> 陳洪綬, 고은도(高隱圖)	33
<그림 22> 陳洪綬,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34

<그림 23> 李時, 청상도(淸賞圖).....	35
<그림 24> 王鑿,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35
<그림 25> 佚名, 품다도(品茶圖).....	35
<그림 26> 唐寅, 자다도(煮茶圖).....	36
<그림 27> 오경모의 재량호.....	36
<그림 28> 郭純, 인물(人物).....	40
<그림 29> 仇英,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40
<그림 30>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40
<그림 31> 王問, 자다도(煮茶圖).....	40
<그림 32> 唐寅, 전다도(煎茶圖).....	41
<그림 33> 文嘉, 혜산도(惠山圖),.....	41
<그림 34>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41
<그림 35> 佚名, 품다도(品茶圖).....	45
<그림 36> 陳洪綬, 고은도(高隱圖).....	45
<그림 37>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46
<그림 38>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47
<그림 39>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48
<그림 40>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48
<그림 41> 文徵明, 품다도(品茶圖).....	54
<그림 42>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54
<그림 43> 陳洪綬, 보천(譜泉).....	54
<그림 44> 陳洪綬,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54
<그림 45>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55
<그림 46>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55
<그림 47> 周臣, 품다도(品茶圖).....	60

<그림 48> 仇英,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60
<그림 49> 邵徵,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60
<그림 50> 錢穀,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61
<그림 51> 仇英, 동림도(東林圖).....	61
<그림 52> 沈周, 속념도(塵慮圖).....	61
<그림 53> 佚名, 품다도(品茶圖).....	65
<그림 54> 唐寅, 품다도(品茶圖).....	65
<그림 55> 黃卷, 희춘도(嬉春圖).....	66
<그림 56> 錢穀,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66
<그림 57> 吳偉, 철적도(鐵笛圖).....	70
<그림 58>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71
<그림 59> 黃卷, 희춘도(嬉春圖).....	71
<그림 60> 陳洪綬, 수도도(授徒圖),.....	72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도에 OECD 통계로 살펴 본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이었으며 1위 멕시코(2,228시간) 다음으로 우리나라(2,124시간)는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지고 간편해졌지만, 반대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금은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담았던 우리의 동양적 사고의 정체성을 잃고 단지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서양적 사고에 맞게 길들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법정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일상의 삶과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빠른 생활 패턴을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늘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잊고 있던 동양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의 힐링(heal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각된 웰빙(well-being)문화는 그 매개체중 하나로 차(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녹차시장과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홍차시장은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2018년 전 세계 차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의 차잎 생산량은 약 557만 톤이며, 2019년 596만 톤, 2020년 600만 톤 이상으로 세계 차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sup>

차생활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은 차음용을 넘어 차문화를 향

---

1) 2018年全球及中國茶葉產量、消費量預測<中國產業信息> 2018. 09. 12

유하면서 차문화의 역사성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틀이 될 수 있다. 오랜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재해 왔던 차문화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현대의 차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도 진정한 차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차생활의 원형이 자리매김 되기 시작한 명대(明代)의 음다도구와 음다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 명대(1368년~1644년)는 중국 차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명대 차문화는 주원장의 용단 폐지로 인한 덩이차의 소멸과 산차의 발전, 차 소비층의 다양화, 대량의 다서와 다화의 출현, 산차의 음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다구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명대 차문화의 발전은 오늘날 우리의 차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명대 차문화가 갖고 있는 사적의미가 있지만 이를 문헌을 통해서 형태, 차를 즐기는 모습, 음다도구 등을 알아보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여 당시 존재했던 음다도구의 실물과 차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적고찰의 자료가 되는 것이 그림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림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대의 차문화 이해를 위해 실증적 자료가 되는 다화 속에 나타난 음다도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당시의 음다법, 음다장소, 차와 악, 음다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문화의 원형으로의 중국 명대 차문화를 다화를 중심으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중국 명대의 음다도구를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다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명대 시기는 중국 역사상 다화의 대량 출현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이 시기의 다화는 문인화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졌으며 대표적인 문인화가로는 沈周, 唐寅, 文徵明, 仇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47인의 문인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작품이 실린 서적과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122점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화의 출처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다화의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다화를 통하여 명대에 사용된 음다도구를 종류와 형태, 특징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다화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음다도구의 형태와 쓰임을 분석하였다.

둘째, 수집한 다화를 통해 명대 시기의 음다문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차를 마시는 방법, 차를 마시는 장소, 차를 마시는 공간의 악(樂)의 유무, 차를 마시는 인물의 성별과 신분의 구분 등 총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차를 마시는 방법은 다화 속 다구의 쓰임에 따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를 마시는 장소는 옥내외의 배경을 표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차를 마시는 공간의 악(樂)의 유무는 다화 속 악기의 등장과 춤사위 등으로 분석하였다. 차를 마시는 인물의 성별과 신분의 구분은 다화 속 인물의 성별이 명확하게 표현 되어있고 구체적인 옷차림을 바탕으로 신분을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명대 다화를 통하여 분석된 음다문화와 음다도구가 현대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1> 명대 작가별 다화

연번	화가	생몰	그림 제목	서적 및 소장처
1	周翰	1366~1429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福建博物院
2	郭純	1370~1444	인물(人物)	臺北故宮博物院
3	戴進	1388~1462	달마육대조사상(達摩六代祖師像)	遼寧省博物館
4	沈貞	약 1400~1482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遼寧省博物館
5	沈周	1427~1509	방예찬필의도(仿倪攢筆意圖)	台北故宮博物院
			계화서옥도(桂花書屋圖)	北京故宮博物院
			졸수암(拙修庵)	南京博物院
			속념도(塵慮圖)	台北故宮博物院
			고현전별도(高賢餞別圖)	台北故宮博物院
6	謝環	14~15세기 중엽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鎮江博物館
7	郭純	15세기초	인물(人物)	台北故宮博物院
8	丁玉川	15세기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浙江省博物館
9	杜堇	15세기중엽~16세기초	매하횡금도(梅下橫琴圖)	上海博物館
10	吳偉	1459~1508	철적도(鐵笛圖)	上海博物館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上海博物館
11	周臣	1460~1535	품다도(品茶圖)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翁同龢家
12	杜堇畫, 金琮書	1465~1505	노동다가시의도(盧仝茶歌詩意圖)	故宮博物院
13	唐寅	1470~1523	계산어은도(溪山漁隱圖)	臺北故宮博物院
			금사도(琴士圖)	台北故宮博物院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台北故宮博物院

			동리상국도(東籬賞菊圖)	上海博物館
			사명도(事茗圖)	故宮博物院
			관학도(款鶴圖)	上海博物館
			품다도(品茶圖)	台北故宮博物院
			전다도(煎茶圖)	台北故宮博物院
			자다도(煮茶圖)	台北故宮博物院
14	文徵明	1470~1559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上海博物館
			혜산음시도(惠山吟詩圖)	개인
			교림자명도(喬林煮茗圖)	台北故宮博物院
			임사전다도(林樹煎茶圖)	天津市藝術博物館
			자다도(煮茶圖)	개인
			의란실도(猗蘭室圖)	故宮博物院
			동원도(東園圖)	臺北故宮博物院
			품다도(品茶圖)	臺北故宮博物院
			다구십영도(茶具十咏圖)	故宮博物院
			호계초당도(滄溪草堂圖)	遼寧省博物館
			진상재도(眞賞齋圖)	上海博物館
			옥천도(玉川圖)	개인
			중정보월도(中庭步月圖)	南京博物院
			다사도(茶事圖)	台北故宮博物院
15	李時	1471~1539	청상도(淸賞圖)	遼寧省博物館
16	謝時臣	1487~1567	문회도(文會圖)	上海博物館
17	陸治	1496~1576	죽천시명도(竹泉試茗圖)	개인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天津博物館
18	王問	1497~1576	자다도(煮茶圖)	台北故宮博物院
19	仇英	약 1498~1552	죽원품고(竹院品古)	故宮博物院
			걸교도(乞巧圖)	臺北故宮博物院

			남도번회도(南都繁會圖)	中國國家博物館
			동림도(東林圖)	臺北故宮博物院
			동파한야부시도(東坡寒夜賦詩圖)	개인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故宮博物院
			사경환다도(寫經換茶圖)	臺北故宮博物院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개인
			송계론화도(松溪論畫圖)	吉林省博物館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台北故宮博物院
			십팔라한도(十八羅漢圖)	개인
			십팔학사등영도(十八學士登瀛圖)	개인
			적벽도(赤壁圖)	遼寧省博物館
			이죽도(移竹圖)	台北故宮博物院
			자다도(煮茶圖)	上海博物館
			금서고은도(琴書高隱圖)	上海博物館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Cleveland Museum of Art
			팽다논화도(烹茶論畫圖)	吉林省博物館
			남계도(南溪圖)	翁同龢家
			동림도(東林圖)	台北故宮博物院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遼寧故宮博物館
20	尤求	16세기	품고도(品古圖)	故宮博物院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天津博物館
			조선향명(釣船享茗)	上海博物館
			원중명화(園中茗畫)	上海博物館
21	顧知	16세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天津博物院

22	文嘉	1501 ~ 1583	혜산도(惠山圖)	上海博物館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濟南市博物館
23	錢穀	약1508 ~ 1578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遼寧省博物館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台北故宮博物院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故宮博物院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中國國家博物館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中國國家博物館
24	孫克弘	1533 ~ 1611	운창청완도(芸窗淸玩圖)	首都博物館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台北故宮博物院
			품다도(品茶圖)	程十發藏書陳列館
25	李士達	1540 ~ 1620	석호도(石湖圖)	개인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蘇州博物館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台北故宮博物院
			죽리천성도(竹裏泉聲圖)	Kyoto National Museum
26	丁雲鵬	1547 ~ 1628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故宮博物館
			자다도(煮茶圖)	無錫博物院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橋本末吉
			송하납양도(松下納涼圖)	湖北博物館
27	宋懋晉	? ~ 1620	용정(龍井)	天津博物館
28	程嘉燧	1565 ~ 1644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上海博物館
29	崔子忠	1574 ~ 1644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University of California
30	士中	1575 ~ 1629	이류방상(李流芳像)	故宮博物院

31	陳夢鶴	1578~1645	유종주상(劉宗周像)	上海博物館
32	藍瑛	1585~1664	전다도(煎茶圖)	上海博物館
33	項聖謨	1597~1668	금천도(琴泉圖)	故宮博物院
34	陳洪綬	1598~1652	팽다도(烹茶圖)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정금철명도(停琴啜茗圖)	朵雲軒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瀋陽故宮博物院
			옥천자상(玉川子像)	程十發藏畫陳列館
			고은도(高隱圖)	개인
			보천(譜泉)	台北故宮博物院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개인
			품다도(品茶圖)	上海朵雲軒
			수도도(授徒圖)	University of California
			매수팽다유호배(梅水烹茶有好杯)	개인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참선도(參禪圖)	翁同龢家			
35	王鏊	1598~1677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天津市文物公司
36	佚名	미상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西安美術學院
37		미상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西安美術學院
38		미상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台北故宮博物院
39		미상	품다도(品茶圖)	台北故宮博物院

40		미상	품다도(品茶圖)	天津博物院
41		미상	자다도(煮茶圖)	故宮博物院
42	陳以誠	미상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天津博物院
43	許至震	미상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 听松)	遼寧省博物館
44	邵徵	미상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台北故宮博物院
45	黃卷	미상	희춘도(嬉春圖)	上海博物館
46	曹義	미상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炎黃藝術館
47	汪耕	미상	좌은도(坐隱圖)	北京圖書館

## Ⅱ. 이론적 배경

### 1. 명대의 음다문화의 배경

차문화는 차의 역사상 전성기인 송대(宋代)를 거쳐 원대(元代)에 체계화·확산되기 시작해서 명대(明代)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중국 명대(1368년~1644년)는 중국 차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빈농 출신이었던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1368년 남경(南京)에 도읍을 정하고 명을 건국하였다. 연호를 홍무(洪武)라고 정했기 때문에 주원장을 홍무제라고도 한다. 같은 해 대도(大都)인 베이징을 함락시켜 원을 북방으로 쫓아냈다.<sup>2)</sup> 초기에 주원장은 원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곧 내부 지향적인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차문화 역시 원대의 차문화를 계승하여 명나라 초까지 단차(團茶)<sup>3)</sup>가 공차(貢茶)로 진공되었으나, 황각사 결승시절과 홍건군의 야전생활을 보낸 주원장은 단차를 만들기 위한 다농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에 주원장이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홍무 24년(1391)9월 16일 “용단(龍團)의 제조를 폐지하고, 오직 차의 싹만을 따서 진공하라<sup>4)</sup>”는 조서를 내려 단차의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용단을 대신해 산차(散茶)<sup>5)</sup>, 즉 엽차(葉茶)로 생산하여 차를 음용하였다.

명대 이전에도 산차(散茶)의 음다방식이 행하여졌으나 명대만큼이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다. 명대에 들어 확산된 산차의 생산은 새로운 잎차문화

2) 누노메초후 저·정순이 역, 중국꺾다문화사, 동국대학교출판부

3) 태평홍국(976~984) 초기 용봉의 문양이 새겨진 틀을 특별히 갖추어 복원에 보내 용봉단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북송 용번 선화복원공다록」

4) “罷造龍團，惟采茶芽以進”，「万歷野獲編」

5) 덩어리로 만든 단차와 반대로 덩어리지지 않은 현대의 엽차(葉茶)형태

를 성립시켰으며 이를 통해 왕실부터 일반백성까지 모든 계층에 의해 차의 소비가 이루어졌고, 생산지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산차의 발전은 기존에 점다법(點茶法)<sup>6)</sup>에서 포다법(泡茶法)<sup>7)</sup>으로 발전하였으며, 포다법도 차와 끓은 물을 넣는 순서에 따라 상투(上投), 중투(中投), 하투(下投)로 나누어 차를 우렸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운 대서(大暑)의 전후에는 상투법(上投法)을, 날씨가 추운 소한(小寒) 전후에는 하투법(下投法)을 이용하여 차를 우렸다.

주고기(周高紀)의 『양선명호계(陽羨茗壺系)』에서는 “주전자에 차를 넣어 뜨겁게 끓인 신선한 물을 부어 마신다. 뜨거운 물에 차를 담갔다 마시게 되면 차의 색, 음, 향, 맛을 음미할 수 있다.”<sup>8)</sup>라고 하여 당시의 음다방법을 알 수 있다.

차의 가공방법으로는 당·송 이래로 증청법(蒸靑法)<sup>9)</sup>에 의한 고행차에서 산차를 만들기 위한 초청법(炒靑法)<sup>10)</sup>으로 대체되면서 초청산차(炒靑散茶)를 생산하게 되었다.

황일정(黃一正)의 「사물감주(事物紺珠)」에서는 97종의 차를 열거하여 당시 차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명대에는 제다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6대 다류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대 초청산차를 제조하는 방법과 도구에 관해서는 장원(張源)의 『다록(茶錄)』, 허차서(許次紓)의 『다소(茶疏)』, 나름(羅廩)의 『다해(茶解)』 등에 초청녹차를 제조하는 방법과 도구가 기술되어있다.<sup>11)</sup>

명대 다서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다서인 허차서(許次紓)의 『다소』에 의한 명대의 제다방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6) 차완에 매우 고운 가루차를 넣은 후 調膏와 擊拂을 거쳐 차탕과 유화를 마시는 법

7) 찻잎에 뜨거운 물로 우려서 마시는 것

8) 주고기(周高紀), 양선명호계(陽羨茗壺系)

9) 뜨거운 증기로 살청하는 방법

10) 뜨거운 솥에서 살청하는 방법

11) 姚國坤, 茶文化概論, 浙江攝影出版社, 2004, p.75.

<표 2> 명대 제다방법

구분	방법
더는 시기	찾잎 채엽 후 바로 더움
더는 양	한 솔 당 4량(兩) <sup>12)</sup>
연료	나뭇가지를 사용
불의 세기	약한 불로 살짝 더워 부드럽게 한 후 강한 불로 가열
보관	단지(餅)에 저장

주요한 점은 허차서(許次紆)의 『다소』와 전춘년(錢椿年)의 『제다신보(製茶新譜)』를 통하여 명대에도 차를 씻어내는 세차(洗茶)<sup>13)</sup>라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원장의 음다법 개혁변화로 인하여 덩이차를 마시던 다완(茶碗)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었으며 차를 우려기 위한 용도로 소차호(小茶壺)인 최초의 자사호<sup>14)</sup>가 출현하게 된다. 찻잔은 다완보다 작은 형태의 잔이 만들어졌으며 차탕의 색깔을 돋보이기 위해 백자나 분청형태의 다구가 유행하였으며, 차를 마시는 음다공간도 다양해졌고 일상다반사로 차와 함께 하였다.

명대 이전의 차는 봉건사회 일부 상류층들의 전유물이었다면, 명대부터는 차를 마시는 것이 상류층은 물론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문화로 자리매김 하여 사회생활, 민속풍습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주원장의 17번째 아들인 주권(朱權, 1378-1448)은 차를 마시는 것과 자연환경을 동일시 여겼으며 차를 마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주권은 주원장의 단차폐지령 이후 저술된 명대 최초의 다서인 『다보(茶譜)』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송대 음다법이었던 점다법과 명대 음다법인 포다법 사이의 전환기에 저

12) 약 150g

13) 차를 씻어내는 과정으로 뜨거운 물로 먼지와 티끌을 씻어 내거나 차가 가지는 향과 맛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14) 중국 의흥 지역에서 생산되는 陶土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토질의 분사암

술된 다서인 점에서 중국 음다문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명대 초기의 차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史料)이다. 또한 『다보』에는 당시 상류층의 차문화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상당 포함되어 있다.

명대에는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정하고 학교제와 과거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신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는데, 과거를 통해 새로이 학위를 얻은 이들 사대부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명대 초기의 5-10배나 되는 3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명대 말기에는 50만 명으로 격증 하였다. 그 결과 관직으로 나아가는 경쟁률은 한없이 높아졌고 계층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다수의 생원들은 뜻을 펼치기 어려웠다. 국가에서 부여받은 요역특권과 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향유하면서 실현이 가능한 사리나 추구하는 보신가적 존재로 대부분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sup>15)</sup>

정치·사회의 부패와 모순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명대 후반 사대부 사이에 세속문학(世俗文學)이 점차 성행하면서 많은 문인들이 과거시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글을 쓰면서, 조용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문인들은 항상 차를 가까이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차, 물, 다구, 환경 등 요구가 더욱 정교해졌다.

명대 차문화 특징 중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량의 다서(茶書)<sup>16)</sup>와 다화(茶畵)가 출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문인들이 새로운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학(茶學)과 관련하여 많은 결과물을 얻어내게 되었다는데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sup>17)</sup>

---

15) 오금성, 명말,청초의 사회변화, pp. 38~50

16) “명대는 다서의 저술이 최다였던 시기이다. 250년간 출간된 다서가 총 68종인데 그 중 33종이 현존하고, 유실되었던 것을 수집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이6종, 완전히 유실된 것이 29종이다.”(阮浩耕·沈冬梅·于良子, 中國古代茶葉全書, 杭州攝影出版社, 1999. p.3)

17) 임진호, 明代 茶文化 양상과 文人의 審美意識, 2013

## 2. 다화에 나타난 음다도구

다화(茶畫)란 차와 관련된 모든 문화적 요소를 표현하는 일종의 예술로 중국 차문화 측면에서 볼 때 독특한 예술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다화는 전통 수묵화에 속하지만 문인화(文人畫)<sup>18)</sup>에 속하기도 한다.

다화란 차를 마시고 즐기는 다사(茶事)에 대하여 그림을 통하여 차와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린린, 2014). ‘차 그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차 그림’을 ‘차(茶), 차도구(茶道具), 다법(茶法), 그리고 제다(製茶)를 포함한 차문화(茶文化)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정의내리고 있다(고연미, 2006). 김재임(2004)은 ‘다화’란 우선 차에 관한 그림을 주제나 부주제로 하여 그 당시의 차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표현된 그림으로, 차문화와 관련된 것이 나타나 있는 그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에 관한 것 중에는 차를 마시는 분위기, 즉 작가가 의도한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차를 한 매개체로 등장시킨 그림을 ‘다화’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화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적·학문적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차와 관련한 음다법, 음다도구를 비롯하여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그림을 통해 표현한 것을 다화로 정의내릴 수 있다.

명대 다화의 특징으로는 지역에 따른 그림 격차가 심화되었던 것을 <표 3>과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다.<sup>19)</sup> 당시 이들 대부분이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소성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차를 마시며 담론하고 시·서·화를 논하는 문인서화가로서 자신들의 고상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18) 문인화란 그림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들의 심중을 표현하여 그린 그림을 일컫는 말로서 달리 사인지화(士人之畫) 혹은 사대부화(士大夫畫)·문인지화(文人之畫)로 불리다가 문인화가 되었다. 이들 사대부의 그림은 중국 북송시대부터 유래되었으며 서화나 서예, 인물화, 묵죽화, 말그림 등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전문 화공이 그린 그림과는 기교면에서나 분명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화공들의 그림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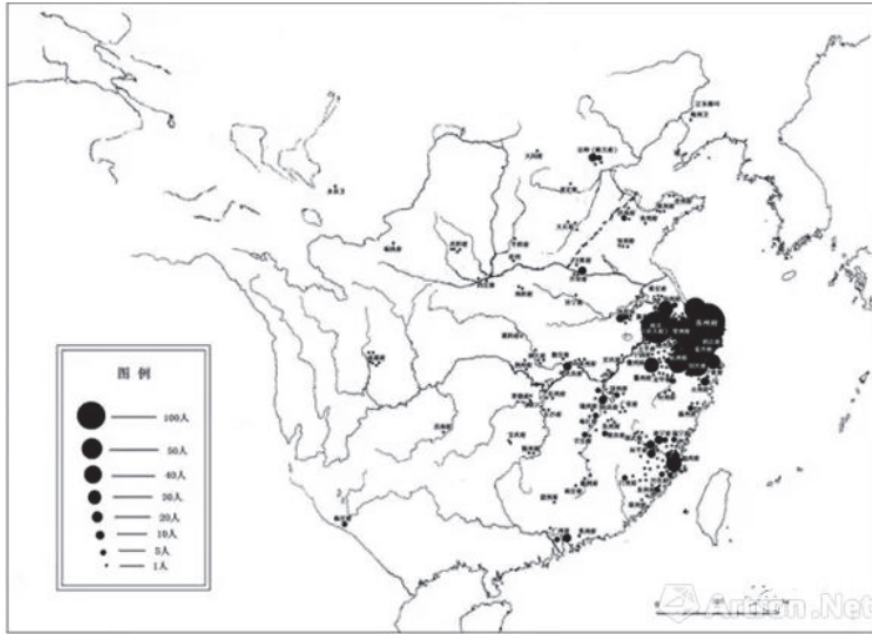
19) 趙振宇, 榮寶齋藝術論壇：明代畫家之地理分布研究, 2017

하였다.<sup>20)</sup>

<표 3> 명대 각 성 화가 수 및 밀집도

번호	지역구분	화가수	백분율(%)
1	강소	574	51.52
2	산동	17	1.53
3	산서	3	0.27
4	허남	16	1.44
5	섬서	8	0.72
6	사천	6	0.54
7	강서	54	4.85
8	호북·호남	30	2.69
9	절강	253	22.71
10	복건	129	11.58
11	광둥	18	1.61
12	광서	0	0
13	운남	5	0.45
14	귀주	1	0.09
총계	14	1114	100%

20) 오명진(2012), 明清期 徽州商人의 茶文化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그림 1>명대 서화가 분포도

### 3. 선행연구

본 연구는 명대의 다화(茶畵)를 통하여 음다도구를 분석하였다. 명대 다화를 통한 선행 연구로는 린린의 「중국 명대 음다(飲茶)공간 연구 : 다화(茶畵)를 중심으로」, 웨이쯔강의 「중국전통 다문화(茶文化)에 나타난 생활방식의 특성 연구 : 당, 송, 원, 명, 청나라의 다화(茶畵) 비교를 중심으로」, 고연미의 「韓·中·日 차 그림(茶畵) 比較研究」 등이 있으며, 명대 차문화와 음다도구, 음다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오명진의 「明清期 徽州商人的 茶文化 研究」, 김재남의 「福建 茶史와 工夫茶의 考察 : 明·清代를 中心으로」, 박지원의 「중국 차(茶)문화에 관한 연구 : 음다법의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이다현의 「中國 飲茶法의 展開에 關한 研究」, 박지원의 「중국 차(茶)문화에 관한 연구 : 음다법의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음다도구와 관련 된 논문들은 주로 문헌적 접근이 많아 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다화를 통하여 명대의 음다도구를 봄으로서 그 당시 음다문화를 이해하고 확인해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명대 다화의 작가들은 대다수 당대의 문인화가들로서 지식인 계층에 의해 소비된 차생활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다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차문화는 모든 계층이 즐기는 차문화가 아닌 특정 지배계층의 차문화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일반백성들의 차생활, 차문화를 살펴 보는데 연구의 한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일반백성들의 차생활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명대는 차문화에서 중요한 사적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진행된 연구 논문도 명대만을 다룬 논문보다는 명대와 청대를 함께 서술하는 논문들이 많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의 명대 차문화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화(茶畵)와 관련하여 아직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동시에 다화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Ⅲ. 명대 다화(茶畵)에 나타난 음다도구

#### 1. 음다도구의 종류와 형태

명대 다화(茶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구(茶具)로는 차를 우리고 마시는 음다도구인 차탁, 찻잔, 찻잔의 손잡이, 자사호와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다구인 풍로, 수방, 표, 개완, 연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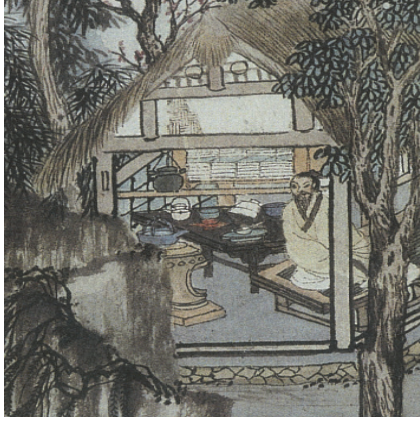
##### 1) 차탁

찻잔을 받치는 데 쓰이는 다구로서 재료로는 도자기, 은, 주석, 구리, 나무, 대나무 등이 쓰이고 형태는 원형, 타원형, 배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sup>21)</sup>

<그림 2~6>을 통해 명대 차탁의 형태를 볼 수 있다.

---

21) 정동효·윤백현·이영희, 「차생활문화대전」, 2012



<그림 2> 沈周, 졸수암(拙修庵),  
南京博物院



<그림 3> 唐寅, 전다도(煎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4> 錢穀,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中國國家博物館



<그림 5>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上海博物館



<그림 6> 佚名, 자다도(煮茶圖),  
故宮博物院

<표 4> 차탁의 유무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있음	없음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郭純	인물(人物)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4	沈周	졸수암(拙修庵)	✓	
5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6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7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8	周臣	품다도(品茶圖)	✓	
9	唐寅	금사도(琴士圖)	✓	
10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1		사명도(事茗圖)		✓
12		전다도(煎茶圖)	✓	
13		자다도(煮茶圖)		✓
14	文徵明	의란실도(猗蘭室圖)	✓	

15		품다도(品茶圖)		✓
16		진상재도(眞賞齋圖)	✓	
17		다사도(茶事圖)		✓
18	李時	청상도(淸賞圖)		✓
19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20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21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22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23		이죽도(移竹圖)		✓
24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25	尤求	품고도(品古圖)	✓	
26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7		조선향명(釣船享茗)	✓	
28		원중명화(園中茗畫)	✓	
29	文嘉	혜산도(惠山圖)		✓
30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31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32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33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34	孫克弘	운창청완도(芸窗淸玩圖)		✓
35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36		품다도(品茶圖)		✓
37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	
38	程嘉燧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
39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40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41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42	陳洪綬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43		고은도(高隱圖)		✓
44		보천(譜泉)		✓
45		품다도(品茶圖)		✓
46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
47	王鑾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48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49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0		품다도(品茶圖)	✓	
51		자다도(煮茶圖)	✓	
52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3	黃卷	희춘도(嬉春圖)		✓
54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5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4>는 다화에 차탁의 유무를 분석한 것이다. 명대 차탁은 굽이 높고 낮은 차탁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림 2~5>는 찻잔의 높이가 낮고 차탁의 굽이 높으며, <그림 6>은 찻잔의 높이가 길고 차탁의 굽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차탁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검은색과 미색을 띄는 차탁도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보아 일반적으로 사용된 차탁은 붉은색인 것을 알 수 있다. 차탁과 잔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차탁이 잔을 바치기 위한 용도 뿐만 아니라 다화 속 인물들이 차를 마실 때 차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를 마실 때 찻잔만 들고 마신 것이 아닌 차탁을 들고 차를 마신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찻잔

찻잔은 차를 마실 때 쓰는 그릇을 말하며 차를 마시는 음다방법에 따라 찻잔의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게 쓰인다. <그림 7~11>은 찻잔의 크기와 잔의 색깔, 찻잔을 잡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찻잔을 잡는 형태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그림 12>와 같이 오늘날에는 엄지와 검지로 찻잔의 몸통부분을 잡고 중지로 굽을 받치듯 잡는 형식이지만 명대에는 지금과 다르게 잔의 굽쪽을 감싸듯이 잔을 잡고 차를 마셨다. 이를 통해 찻잔의 열전

도움을 낮추고자 굽이 높은 찻잔을 사용하거나 굽이 낮으면 차탁위에 찻잔을 올리거나 손잡이가 있는 찻잔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佚名, 품다도(品茶圖),  
天津博物院



<그림 8>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림 9> 陳洪綬, 보천(譜泉),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10> 陳洪綬,  
품다도(品茶圖), 上海博物館



<그림 11> 黄卷, 희춘도(嬉春圖), 上海博物館



<그림 12> 오늘날 찻잔을 잡는 형태

<표 5> 찻잔의 크기와 색깔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잔의 크기		잔의 색깔	
			소	대	있음	없음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2	沈周	줄수암(拙修庵)		✓	✓	
3		고현전별도(高賢錢別圖)		✓		✓
4	唐寅	금사도(琴士圖)		✓		✓
5		전다도(煎茶圖)		✓		✓
6		자다도(煮茶圖)		✓		✓
7	文徵明	품다도(品茶圖)		✓		✓
8		진상재도(眞賞齋圖)		✓		✓
9	李時	청상도(淸賞圖)		✓		✓
10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	
11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
12		금서고은도(琴書高隱圖)		✓		✓
13	尤求	품고도(品古圖)		✓		✓
14		조선향명(釣船享茗)		✓		✓
15		원중명화(園中茗畫)		✓		✓
16	文嘉	혜산도(惠山圖)		✓		✓
17	錢穀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
18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
19		품다도(品茶圖)		✓		✓
20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		✓
21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
22	陳洪綬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
23		옥천자상(玉川子像)		✓		✓

24		고은도(高隱圖)		✓		✓
25		품다도(品茶圖)		✓		✓
26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	✓	
27	王鑾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
28	佚名	품다도(品茶圖)		✓		✓
29		자다도(煮茶圖)		✓		✓
30	黃卷	희춘도(嬉春圖)	✓			✓

<표 5>는 찻잔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구분한 표이다.

송대 점다법으로 차를 음용 했을 때는 찻잔의 크기가 사발의 형태를 띄고 있어 크기가 매우 컸지만 명대 포다법으로 음용방식이 변화하면서 잔의 크기도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화를 통해 여성이 사용하는 잔이 남성이 사용하는 잔 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의 색깔은 대개 색깔이 없는데 이는 차의 탕색을 보기 위해 색깔이 없는 찻잔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손잡이

찻잔은 손잡이가 있는 찻잔과 손잡이가 없는 찻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대 다화를 통하여 손잡이가 있는 찻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잡이가 있는 찻잔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謝時臣, 尤求, 丁雲鵬, 士中, 佚名の 작품을 통하여 명대에도 간혹 손잡이가 있는 찻잔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17>은 손잡이가 있는 찻잔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13>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西安美術學院



<그림 14>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上海博物館



<그림 15> 尤求, 품고도(品古圖),  
故宮博物院



<그림 16>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無錫博物院



<그림 17>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故宮博物院

<표 6> 손잡이의 유무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있음	없음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郭純	인물(人物)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4	沈周	졸수암(拙修庵)		✓
5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6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7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8	周臣	품다도(品茶圖)		✓
9	唐寅	금사도(琴士圖)		✓
10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1		사명도(事茗圖)		✓
12		전다도(煎茶圖)		✓
13		자다도(煮茶圖)		✓
14	文徵明	의란실도(猗蘭室圖)		✓
15		품다도(品茶圖)		✓

16		진상재도(眞賞齋圖)		✓
17		다사도(茶事圖)		✓
18	李時	청상도(淸賞圖)		✓
19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20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21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22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23		이죽도(移竹圖)		✓
24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25	尤求	품고도(品古圖)	✓	✓
26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7		조선향명(釣船享茗)		✓
28		원중명화(園中茗畫)		✓
29	文嘉	혜산도(惠山圖)		✓
30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31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32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33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34	孫克弘	운창청완도(芸窗淸玩圖)		✓
35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36		품다도(品茶圖)		✓
37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	
38	程嘉燧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
39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40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41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42	陳洪綬	한화궁사도(閑話宮事圖)		✓
43		고은도(高隱圖)		✓
44		보천(譜泉)		✓
45		품다도(品茶圖)		✓
46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
47	王鑾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48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49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0		품다도(品茶圖)		✓
51		자다도(煮茶圖)	✓	
52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3	黃卷	희춘도(嬉春圖)		✓
54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5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6>은 다화 속 찻잔의 손잡이가 있는 작품을 구분한 것이다. <그림 16> 丁雲鵬의 자다도(煮茶圖)를 통하여 손잡이가 있는 잔은 없는 잔에 비해 잔의 높이가 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차탁의 높이 또한 다르다. 이는 잔의 온도가 높아 손잡이 있는 잔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15>를 통하여 손잡이가 있는 잔의 전형적인 형태가 오늘날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 4) 자사호

자사(紫紗)는 중국 강소성(江蘇省) 의흥(宜興)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토질의 분사암으로, 자사를 원료로 하여 만든 호를 자사호라고 한다. 자사호는 포다법의 성행으로 차를 우려는 새로운 형태의 다구를 제작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명대는 금속제질의 다구에 차를 끓여 마시던 기존의 자다(煮茶)방식에서 벗어나 차호와 물을 끓이는 자수(煮水)용 호(壺)를 구분해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자사호(紫紗壺)가 흥기하여 발전하게 되었다.<sup>22)</sup> <그림 18~22>는 차를 우려마시는 자사호를 볼 수 있으며, <그림 23~26>을 통해 물을 끓이는 호를 확인할 수 있다.

22) 임진호, 「明代 茶文化 양상과 文人의 審美意識」, 2013



<그림 18>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西安美術學院



<그림 19> 王問,  
자다도(煮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20> 黃卷, 희춘도(嬉春圖), 上海博物館



<그림 21> 陳洪綬, 고은도(高隱圖), 개인



<그림 22> 陳洪綬,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개인



<그림 23> 李時, 청상도(淸賞圖),  
遼寧省博物館



<그림 24> 王鑿,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天津市文物公司



<그림 25> 佚名, 품다도(品茶圖), 天津博物院



<그림 26> 唐寅, 자다도(煮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27> 오경모의 재량호

<표 7> 자사호와 호 구분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자사호	호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郭純	인물(人物)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4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5	吳偉	철적도(鐵笛圖)		✓
6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7	周臣	품다도(品茶圖)		✓
8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9	唐寅	금사도(琴士圖)		✓
10		사명도(事茗圖)		✓
11		전다도(煎茶圖)		✓
12		자다도(煮茶圖)		✓
13	文徵明	의란실도(猗蘭室圖)		✓
14		품다도(品茶圖)		✓
15		호계초당도(滄溪草堂圖)		✓
16		진상재도(眞賞齋圖)		✓
17		다사도(茶事圖)		✓
18	李时	청상도(淸賞圖)		✓
19	谢时臣	문회도(文會圖)	✓	
20	王問	자다도(煮茶圖)	✓	
21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22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23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24		이죽도(移竹圖)		✓
25		자다도(煮茶圖)		✓
26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27		팽다논화도(烹茶論畫圖)		✓
28		남계도(南溪圖)		✓
29		품고도(品古圖)		✓
30	尤求	조선향명(釣船享茗)		✓
31		원중명화(園中茗畫)		✓
32	文嘉	혜산도(惠山圖)		✓
33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34	孙克弘	운창청완도(芸窗淸玩圖)	✓	
35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36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37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38	丁雲鵬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39		자다도(煮茶圖)		✓
40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41	陈梦鹤	유종주상(劉宗周像)	✓	✓
42	陳洪綬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43		옥천자상(玉川子像)	✓	
44		고은도(高隱圖)	✓	✓
45		보천(譜泉)	✓	✓
46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	
47		품다도(品茶圖)	✓	✓
48		수도도(授徒圖)	✓	
49		참선도(參禪圖)	✓	

50	王鑑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51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52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3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4		품다도(品茶圖)		✓
55		품다도(品茶圖)		✓
56		자다도(煮茶圖)	✓	✓
57		許至震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听松)	
58	黃卷	희춘도(嬉春圖)	✓	
59	汪耕	좌은도(坐隱圖)	✓	✓

<표 7>은 다화에서 볼 수 있는 자사호와 호를 구분한 것이다. <그림 27>은 현재 유일하게 제작시기가 밝혀진 오경모의 제량호 형태이며 <그림 19> 王問의 자다도(煮茶圖)작품을 통하여 제량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5) 풍로

풍로는 불을 피우는 화로의 하나로 동(銅)이나 철(鐵)재질로 주조(鑄造)하여 만든 것으로 당대(唐代) 육우(陸羽)가 저술한 『다경(茶經)』의 사지기(四之器)에 의하면 풍로는 자다(煮茶)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음다법의 발전으로 명대(明代)에는 자수(煮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림 28~34>는 자수 용도의 다양한 형태의 풍로를 볼 수 있으며, 동과 철 재질의 풍로뿐만 아니라 흙과 나무 재질의 풍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8> 郭純, 인물(人物),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29> 仇英,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Cleveland Museum of Art



<그림 30>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上海博物館



<그림 31> 王問, 자다도(煮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32> 唐寅, 진다도(煎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33> 文嘉, 혜산도(惠山圖),  
上海博物館



<그림 34>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无錫博物院

<표 8> 풍로의 형태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원형	방향	혼합형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3	沈周	줄수암(拙修庵)	✓		
4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5	郭純	인물(人物)	✓		
6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7	周臣	품다도(品茶圖)	✓		
8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9	唐寅	금사도(琴士圖)	✓		
10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1		사명도(事茗圖)	✓		
12		관학도(款鶴圖)	✓		
13		품다도(品茶圖)	✓		
14		전다도(煎茶圖)	✓		
15		자다도(煮茶圖)			✓
16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17	교림자명도(喬林煮茗圖)			✓	
18	의란실도(猗蘭室圖)		✓		
19	품다도(品茶圖)		✓		
20	호계초당도(滌溪草堂圖)		✓		
21	진상재도(眞賞齋圖)		✓		
22	陸治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		
23	王問	자다도(煮茶圖)		✓	
24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25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26		이죽도(移竹圖)	✓		
27		자다도(煮茶圖)	✓		

28		금서고은도(琴書高隱圖)	✓		
29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30		팽다논화도(烹茶論畫圖)	✓		
31		남계도(南溪圖)	✓		
32		동림도(東林圖)	✓		
33		품고도(品古圖)	✓		
34	尤求	조선향명(釣船享茗)	✓		
35		원중명화(園中茗畫)	✓		
36	顧知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37	文嘉	혜산도(惠山圖)			✓
38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39	錢穀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40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41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42	孫克弘	품다도(品茶圖)	✓		
43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44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45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46	丁雲鵬	자다도(煮茶圖)			✓
47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		
48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49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50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51		고은도(高隱圖)	✓		
52	陳洪綬	보천(譜泉)	✓		
53		품다도(品茶圖)	✓		
54		참선도(參禪圖)	✓		
55	王鑾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56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57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8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9		품다도(品茶圖)	✓		
60		품다도(品茶圖)	✓		
61		자다도(煮茶圖)	✓		
62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63	許至震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听松)	✓		
64	邵徵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		
65	黃卷	희춘도(嬉春圖)	✓		
66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67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8>은 풍로의 형태를 구분한 표로 제일 많이 사용된 풍로의 형태는 원형, 방형, 혼합형 순이다. 동, 철, 흙의 재질 외 <그림 50, 53>은 풍로 걸부분을 나무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풍로에 미적요소를 가미했음을 알 수 있다.

## 6) 기타 다구

기타 다구는 차를 준비하고 우리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구들로 물을 담아 두는 항아리인 수방과 수방 안에 들어있는 물을 뜨는 용도의 표, 오늘날에는 차를 우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지만 명대에는 차를 마시는 뚜껑이 있는 잔으로 사용되었던 개완, 송대에 연고차(研膏茶)를 갈던 용도였지만 명대에는 잎차를 갈던 목적으로 사용된 연을 볼 수 있다.

<그림 35, 36>은 작가미상의 작품 품다도(品茶圖)와 陳洪綬작가의 고은도

(高隱圖)를 통하여 수방과 표를 볼 수 있고, <그림 37, 38>은 仇英작가의 죽원품고(竹院品古)와 丁玉川의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로 개완을 볼 수 있으며, <그림 39, 40>은 周翰작가의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와 崔子忠작가의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를 통하여 연을 볼 수 있다.



<그림 35> 佚名, 품다도(品茶圖),  
天津博物院



<그림 36> 陳洪綬,  
고은도(高隱圖), 개인



<그림 37>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故宫博物院



<그림 38>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浙江省博物館



<그림 39>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福建博物院



<그림 40>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University of California

<표 9> 기타 다구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수방·표	개완	연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3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4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5	唐寅	금사도(琴士圖)	✓		
6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7	王問	자다도(煮茶圖)	✓		
8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9	尤求	원중명화(園中茗畫)	✓		
10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11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12	項聖謨	금천도(琴泉圖)	✓		
13	陳洪綬	고은도(高隱圖)	✓		
14		참선도(參禪圖)	✓		
15	佚名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16	佚名	품다도(品茶圖)	✓		

<표 9>는 수방·표, 개완, 연을 구분한 표로 다화 속에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음다도구의 특징

### 1) 남녀별 선호 차

명대 다화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 선호도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대에서 명나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과 다른 음다방법으로 차를 즐기게 되었다. 점다법에서 포다법의 변화로 차를 우려기 위한 다양한 다구들이 생겨났으며 차잔의 크기 또한 전보다 작아지게 되었다.

다화를 통해 남녀별 사용된 차잔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송대에 비해 차잔이 작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큰 형태의 잔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이 사용하는 차잔에 비해 작은 차잔을 사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명대 성별에 따른 선호 차잔이 존재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 2) 실용성 위주의 찻잔과 차탁

다화 속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찻잔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된 찻잔의 굵이 상당히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찻잔을 잡는 형태 또한 자세히 나타나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현재와 다르게 찻잔의 몸통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닌 찻잔의 아래쪽 굵을 감싸듯이 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끓는 물로 바로 차를 우려서 따라 마시기에는 찻잔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 잔을 바로 잡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명대 다화에 등장한 차탁을 보면 역시 굵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열전도율이 높아 굵을 높게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차탁이 단지 찻잔을 받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차탁과 찻잔을 함께 들어 차를 마심으로서 뜨거운 잔을 직접적으로 잡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손잡이의 용도가 실용성 위주로 사용된 것은 손잡이가 있는 찻잔에 의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당시 손잡이가 있던 잔에는 차탁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차탁의 굵이 매우 낮은 것을 봄으로서 찻잔의 손잡이 유·무에 따라 차탁의 사용이 단지 미적을 위해 사용 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게 사용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3) 자사호의 등장

음다법의 변화로 차를 우리기 위한 작은 형태의 호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차를 우리는 작은 소차호(小茶壺)가 명대에 만들어진 자사호 이다. 자사호의 창시자는 금사사의 스님<sup>23)</sup>이나 차를 우리기 위한 다구로서 시작은 명나라 정

덕(正德)년간(1506~1521년)에 공춘(供春)에 의해 다구로서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 이른 제작시기라 평가받고있는 오경모의 제량호를 통해 자사호의 등장과 사용시기가 명대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명대 다화에는 자사호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자사호의 사용이 활발했음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자사호에 차를 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대에도 자사호에 차를 우려서 마셨던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재와 비교해 크기가 매우 크게 제작되었고 직접 풍로에서 자사호를 올려 끓였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사호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불에 직접 끓였다가 후에 차를 우리는 용도로만 쓰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다양한 형태의 풍로

풍로의 형태는 크게 원형, 방형, 혼합형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풍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흙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로 곁에 부분에 나무를 덧대어 디자인함으로써 풍로의 사용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 미적표현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 5) 개완의 용도

명대에 다화 속에 등장하는 개완의 수는 매우 적는데 이는 이 시기에 개완이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화 속 개완은 차를 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찻잔의 일부로서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개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

23) 周高起, 「陽羨茗壺系」

었다.

## 6) 다양한 준비다구

차를 준비하는 다양한 다구로는 연, 협, 수방·표 등을 볼 수 있다. 차를 가  
는 용도인 연은 송대에 많이 사용하던 다구로 명대로 들어서 다수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화 속 연의 등장을 보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접다  
법이 이루어졌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협은 숯을 집는 젓가락 같이 생  
긴 긴 막대기로 풍로 옆 숯덩이 위에 꽂혀있거나 하는 그림을 통해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수방·표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와 표주박으로 협과 마찬가지로  
풍로 옆에서 쓰임을 볼 수 있었다.

## IV. 명대 다화에 나타난 음다법

### 1. 음다법

음다법이란 차를 음용하는 방식으로 차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음용되어왔다. 차가 약용에서 음용으로의 단계로 발전한 후 음다법의 특징으로는 당대에는 차를 끓여서 마시던 자다법, 송대에는 차를 가루내어 풀어마시던 점다법, 명대에는 차를 우려 마시던 포다법으로 변화하였다.

명대에 주음다법이 포다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다화로는 37명의 작가의 그림 88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그림 41~44>는 물을 끓이는 호와 차를 따라서 마시는 호가 따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포다법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5, 46>은 점다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文徵明,  
 품다도(品茶圖),  
 臺北故宮博物院



<그림 42>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清課圖),  
 臺北故宮博物院



<그림 43> 陳洪綬, 보천(譜泉),  
 臺北故宮博物院



<그림 44> 陳洪綬,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개인



<그림 45>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福建博物院



<그림 46>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University of California

<표 10> 명대 음다법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자다법	집다법	포다법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郭純	인물(人物)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4	沈周	줄수암(拙修庵)			✓
5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6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7	周臣	품다도(品茶圖)			✓
8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9	唐寅	금사도(琴士圖)			✓
10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1		사명도(事茗圖)			✓
12		관학도(款鶴圖)			✓
13		품다도(品茶圖)			✓
14		전다도(煎茶圖)			✓
15		자다도(煮茶圖)			✓

16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17		교림자명도(喬林煮茗圖)		✓
18		임사전다도(林樹煎茶圖)		✓
19		의란실도(猗蘭室圖)		✓
20		품다도(品茶圖)		✓
21		호계초당도(滸溪草堂圖)		✓
22		진상재도(眞賞齋圖)		✓
23		다사도(茶事圖)		✓
24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25	陸治	죽천시명도(竹泉試茗圖)		✓
26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
27	王問	자다도(煮茶圖)		✓
28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29		결교도(乞巧圖)		✓
30		남도번회도(南都繁會圖)		✓
31		동림도(東林圖)		✓
32		동파한야부시도(東坡寒夜賦詩圖)		✓
33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34		사경환다도(寫經換茶圖)		✓
35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36		송계론화도(松溪論畫圖)		✓
37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38		십팔라한도(十八羅漢圖)		✓
39		십팔학사등영도(十八學士登瀛圖)		✓
40		적벽도(赤壁圖)		✓
41		이죽도(移竹圖)		✓
42		자다도(煮茶圖)		✓
43		금서고은도(琴書高隱圖)		✓
44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45		팽다논화도(烹茶論畫圖)		✓
46		남계도(南溪圖)		✓
47		동림도(東林圖)		✓

48	尤求	품고도(品古圖)			✓
49		조선향명(釣船享茗)			✓
50		원중명화(園中茗畵)			✓
51	顧知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2	文嘉	혜산도(惠山圖)			✓
53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54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55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56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57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58		품다도(品茶圖)			✓
59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60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61	丁雲鵬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62		자다도(煮茶圖)			✓
63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
64		송하납양도(松下納涼圖)			✓
65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66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67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68	藍瑛	전다도(煎茶圖)			✓
69	陳洪綬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70		옥천자상(玉川子像)			✓
71		고은도(高隱圖)			✓
72		보천(譜泉)			✓
73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
74		품다도(品茶圖)			✓
75		수도도(授徒圖)			✓
76		참선도(參禪圖)			✓
77	王鑒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78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79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0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1		품다도(品茶圖)			✓
82		품다도(品茶圖)			✓
83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4	許至震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 听松)			✓
85	邵徵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
86	黃卷	희춘도(嬉春圖)			✓
87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8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10>은 명대 다화를 통해 음다법을 정리한 것이다. 음다법을 알 수 있는 88점의 작품 중 86점이 포다법으로 차를 마셨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품 2점에 차를 가는 도구인 연을 통하여 점다법도 행하여 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의 수로 보아 명대에 점다법으로 차를 마신 것은 극히 드물며 대개 포다법으로 차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44>는 차를 가는 연이 없고 쓰임이 다른 호를 통하여 포다법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5, 46>은 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를 갈아서 마시는 점다법임을 알 수 있다.

## 2. 음다장소

명대에는 차를 마시는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차를 마시는 음다장소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백성들은 일반 다관에서 차의 소비를 하였으며, 문인들은 고급 다관에서 차를 소비하고 마시면서 향락을 누렸다. 모든 계층에 의한 차의 소비로 고상함과 저속함의 다관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등차의 다양화를 초래하였지만, 다관은 일반백성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 각 계층의 동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sup>24)</sup>

하지만 명대 다화의 작가들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문인작가라는 점과 당시 문인작가들이 일반백성들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을 그림에 담았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음다공간 중 다관에 대한 구분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를 마시는 장소를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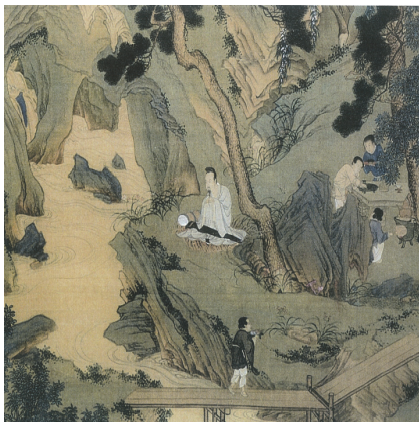
차를 마시는 장소는 총 작품은 82점 중 대표그림 <그림 47~52>를 통하여 차를 마시는 음다장소를 볼 수 있다.

---

24) 전태규(2012), 중국다관 문화의 변화와 특색,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림 47> 周臣, 품다도(品茶圖),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그림 48> 仇英,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故宮博物院



<그림 49> 邵徽,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50> 錢穀,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故宮博物院



<그림 51> 仇英, 동림도(東林圖),  
臺北故宮博物院



<그림 52> 沈周,  
속념도(塵慮圖), 台北故宮博物院

<표 11> 음다장소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실내	실외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2	郭純	인물(人物)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4	沈周	줄수암(拙修庵)		✓
5		속념도(塵慮圖)		✓
6		고현전별도(高賢錢別圖)	✓	
7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8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9	吳偉	철적도(鐵笛圖)		✓
10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11	周臣	품다도(品茶圖)		✓
12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13	唐寅	금사도(琴士圖)		✓
14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5		사명도(事茗圖)	✓	
16		관학도(款鶴圖)		✓
17		품다도(品茶圖)	✓	
18		전다도(煎茶圖)		✓
19		자다도(煮茶圖)	✓	
20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21		임사전다도(林樹煎茶圖)	✓	
22		의란실도(猗蘭室圖)	✓	
23		동원도(東園圖)	✓	
24		품다도(品茶圖)	✓	
25		다구십영도(茶具十咏圖)	✓	
26		호계초당도(滄溪草堂圖)	✓	
27		진상재도(眞賞齋圖)	✓	

28		다사도(茶事圖)	✓	
29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30	陸治	죽천시명도(竹泉試茗圖)		✓
31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	
32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33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34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35		이죽도(移竹圖)		✓
36		자다도(煮茶圖)		✓
37		금서고은도(琴書高隱圖)		✓
38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39		팽다논화도(烹茶論畫圖)		✓
40		남계도(南溪圖)	✓	
41		동림도(東林圖)	✓	
42	尤求	품고도(品古圖)		✓
43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44		조선향명(釣船享茗)		✓
45		원중명화(園中茗畫)		✓
46	顧知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47	文嘉	혜산도(惠山圖)		✓
48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	
49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50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51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	
52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53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54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55		품다도(品茶圖)		✓
56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7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58	丁雲鵬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59		자다도(煮茶圖)		✓
60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
61		송하납양도(松下納涼圖)		✓
62		宋懋晉	용정(龍井)	✓
63	程嘉燧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
64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65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66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67	藍瑛	전다도(煎茶圖)		✓
68	陳洪綬	팽다도(烹茶圖)		✓
69		고은도(高隱圖)		✓
70		보친(譜泉)		✓
71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72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3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4		품다도(品茶圖)		✓
75		품다도(品茶圖)		✓
76		자다도(煮茶圖)		✓
77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8	許至震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听松)		✓
79	邵徵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
80	黃卷	희춘도(嬉春圖)		✓
81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2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11>은 차를 마시는 음다장소를 실내, 실외로 정리한 것이다. 총 82개의 다화 중 22개의 작품의 음다장소가 실내, 60개의 작품의 음다장소가 실외인 것으로 보아 실외에서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내에서 차를 마시더라도 공간이 산수와 함께 어우러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3. 차와 악(樂)

차문화의 발전은 문화예술 영역에도 반영이 되었다. 차에 관한 문화예술로서 그림과 시 이외에도 노래·무용·연극이 나타난다. 명대 다화 속에서 차를 마시는 인물 중 악을 즐기는 다화로는 총 82개 작품 중 27개 작품에서 악이 있으며, <그림 53~56>은 다화 속 악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53> 佚名, 품다도(品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54> 唐寅, 품다도(品茶圖),  
台北故宮博物院



<그림 55> 黃卷, 희춘도(嬉春圖), 上海博物館



<그림 56> 錢穀, 진희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中國國家博物館

<표 12> 악이 있는 다화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있음	없음
1	郭純	인물(人物)		✓
2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3	沈周	졸수암(拙修庵)		✓
4		속념도(塵慮圖)		✓
5		고현전별도(高賢錢別圖)		✓
6	謝環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
7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8	吳偉	철적도(鐵笛圖)	✓	
9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10	周臣	품다도(品茶圖)		✓
11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12	唐寅	금사도(琴士圖)	✓	
13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14		사명도(事茗圖)	✓	
15		관학도(款鶴圖)		✓
16		전다도(煎茶圖)		✓
17		자다도(煮茶圖)		✓
18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19		의란실도(猗蘭室圖)		✓
20		동원도(東園圖)		✓
21		품다도(品茶圖)		✓
22		호계초당도(滸溪草堂圖)		✓
23		진상재도(眞賞齋圖)	✓	
24		다사도(茶事圖)		✓
25	李時	청상도(淸賞圖)	✓	
26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27	陸治	죽천시명도(竹泉試茗圖)		✓
28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
29	王問	자다도(煮茶圖)		✓
30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31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32		이죽도(移竹圖)		✓

33		자다도(煮茶圖)		✓
34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35		팽다는화도(烹茶論畫圖)	✓	
36		남계도(南溪圖)		✓
37		동림도(東林圖)		✓
38		품고도(品古圖)		✓
39	尤求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40		조선향명(釣船享茗)	✓	
41		원중명화(園中茗畫)		✓
42	顧知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43	文嘉	혜산도(惠山圖)		✓
44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
45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46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47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
48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49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50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淸課圖)		✓
51		품다도(品茶圖)		✓
52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53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54	丁雲鵬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55		자다도(煮茶圖)		✓
56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
57		송하납양도(松下納涼圖)		✓
58	程嘉燧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
59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60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61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62	項聖謨	금천도(琴泉圖)	✓	
63	陳洪綬	팽다도(烹茶圖)		✓
64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65		옥천자상(玉川子像)		✓
66		고은도(高隱圖)		✓

67		보천(譜泉)		✓
68		품다도(品茶圖)	✓	
69		수도도(授徒圖)	✓	
70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
71	王鑒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72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73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4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5	佚名	품다도(品茶圖)	✓	
76		품다도(品茶圖)		✓
77		자다도(煮茶圖)		✓
78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79	許至震	형산선생청송도(衡山先生听松)		✓
80	黃卷	희춘도(嬉春圖)	✓	
81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82	汪耕	좌은도(坐隱圖)		✓

<표 12>는 다화에서 악의 유무를 구분한 것이다. 악의 유무는 다화 속 악기가 있거나 악이 있었음을 유추 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그림 53~55>에는 직접적으로 악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56>은 따로 악기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등장인물 중 여성이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화 속 악기는 금(槩)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파(琵琶), 관악기 순이다.

차를 마실 때 진중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롭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음다인물

다화 속 차를 마시는 음다인물들은 문인작가에 의해 그려진 인물들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보다는 일부 계층인 문인들과 여성들 귀족들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자신들의 생활을 그림에 담았던 문인작가들에 자신들을 동일하게 그리고, 명대 다화 작가들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문인작가라는 점과 당시 문인작가들이 일반백성들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을 그림에 담았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성별 및 신분을 알 수 있는 다화는 모두 85점이다. <그림 57~60>을 통하여 차를 음용했던 인물의 성별과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림 57> 吳偉, 철적도(鐵笛圖), 上海博物館



<그림 58> 吳偉,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上海博物館



<그림 59> 黃卷, 희춘도(嬉春圖), 上海博物館



<그림 60> 陳洪綬, 수도도(授徒圖), University of California

<표 13> 성별 및 신분

번호	작가	그림 제목	성별			신분	
			남	여	남과여	귀족·지식인	평민
1	周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2	郭純	인물(人物)	✓			✓	
3	沈貞	죽로산방도(竹爐山房圖)	✓			✓	
4	沈周	졸수암(拙修庵)	✓			✓	
5		속념도(塵慮圖)	✓			✓	
6		고현전별도(高賢餞別圖)	✓			✓	
7	丁玉川	독좌탄금도(獨坐彈琴圖)		✓		✓	
8	吳偉	철적도(鐵笛圖)			✓	✓	
9		사림아집도(詞林雅集圖)	✓			✓	
10	周臣	품다도(品茶圖)	✓			✓	
11		포옹설영도(匏翁雪咏圖)	✓			✓	
12	唐寅	금사도(琴士圖)	✓			✓	
13		도곡증사도(陶穀贈詞圖)			✓	✓	
14		사명도(事茗圖)	✓			✓	
15		관학도(款鶴圖)	✓			✓	
16		전다도(煎茶圖)	✓			✓	
17		자다도(煮茶圖)	✓			✓	
18	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	
19		의란실도(猗蘭室圖)	✓			✓	
20		동원도(東園圖)	✓			✓	
21		품다도(品茶圖)	✓			✓	
22		호계초당도(滌溪草堂圖)	✓			✓	
23		진상재도(眞賞齋圖)	✓			✓	

24		다사도(茶事圖)	✓			✓	
25	李時	청상도(淸賞圖)	✓			✓	
26	謝時臣	문회도(文會圖)	✓			✓	
27	陸治	죽천시명도(竹泉試茗圖)	✓			✓	
28		동음고사도(桐蔭高士圖)	✓			✓	
29	王問	자다도(煮茶圖)	✓			✓	
30	仇英	죽원품고(竹院品古)			✓	✓	
31		옥동선연도(玉洞仙緣圖)	✓			✓	
32		송정시천도(松亭試泉圖)	✓			✓	
33		이죽도(移竹圖)	✓			✓	
34		조맹부사경환다도(趙孟頫寫經換茶圖)	✓			✓	
35		남계도(南溪圖)	✓			✓	
36		동림도(東林圖)	✓			✓	
37		尤求	품고도(品古圖)	✓			✓
38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39	조선항명(釣船享茗)		✓			✓	
40	원중명화(園中茗畫)		✓			✓	
41	顧知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42	文嘉	혜산도(惠山圖)	✓			✓	
43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			✓	
44	錢穀	죽정대기도(竹亭對棋圖)	✓			✓	
45		혜산자천도(惠山煮泉圖)	✓			✓	
46		정혜선원도(定慧禪院圖)	✓			✓	
47		진회야유도지일(秦淮冶游圖之一)			✓	✓	

48		진회야유도지이(秦淮冶游圖之二)			✓	✓	
49	孫克弘	소한청과도(銷閑清課圖)	✓			✓	
50		품다도(品茶圖)	✓			✓	
51	李士達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52		좌청송풍도(坐聽松風圖)	✓			✓	
53	丁雲鵬	옥천자다도(玉川煮茶圖)	✓			✓	
54		자다도(煮茶圖)	✓			✓	
55		수하임무도(樹下任務圖)	✓			✓	
56		송하납양도(松下納涼圖)	✓			✓	
57	宋懋晉	용정(龍井)	✓			✓	
58	程嘉燧	호구송월시다도(虎丘松月試茶圖)	✓			✓	
59	崔子忠	행원아취도(杏園雅聚圖)			✓	✓	
60	士中	이류방상(李流芳像)	✓			✓	
61	陳夢鶴	유종주상(劉宗周像)	✓			✓	
62	藍瑛	전다도(煎茶圖)	✓			✓	
63	陳洪綬	팽다도(烹茶圖)	✓			✓	
64		한화궁사도(閒話宮事圖)			✓	✓	
65		옥천자상(玉川子像)	✓			✓	
66		고은도(高隱圖)	✓			✓	
67		보천(譜泉)	✓			✓	
68		고현독서도(高賢讀書圖)	✓			✓	
69		품다도(品茶圖)	✓			✓	
70		수도도(授徒圖)			✓	✓	
71		사녀인물도(仕女人物圖)			✓	✓	

72		참선도(參禪圖)	✓			✓	
73	王鑿	상하철명도(賞荷啜茗圖)	✓			✓	
74	佚名	자다문도도(煮茶問道圖)	✓			✓	
75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76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77		품다도(品茶圖)	✓			✓	
78		품다도(品茶圖)	✓			✓	
79		자다도(煮茶圖)	✓			✓	
80		陳以誠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81	許至震	형산선생칭송도(衡山先生听松)	✓			✓	
82	邵徵	송악제년도(松岳齊年圖)	✓			✓	
83	黃卷	희춘도(嬉春圖)		✓		✓	
84	曹義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	
85	汪耕	좌은도(坐隱圖)	✓			✓	

<표 13>은 차를 마시는 인물의 신분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화 속 차를 마시는 인물의 성별은 남성이 많이 보이며, 인물의 신분은 귀족 및 지식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계층이 차를 소비하였다는 기록에 반해 다화 속에서 평민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이는 다화를 그리던 작가가 문인화가인 경우가 많고 본인들의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평민의 모습은 다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 IV. 결 론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신농씨(神農氏)에 의해 시작되어 5,000년이라는 시간 거쳐 꾸준히 발전 계승되어 내려온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것이다. 음용법 측면에서만 봐도 당대 자다법, 송대 점다법, 명대에서 현재까지 포다법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차의 주 음다도구가 명대에서 등장하여 발전된 것을 여러 문헌과 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명대를 주목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차를 즐기는 음다법 역시 명대부터 포다법의 음다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에 맞게 음다도구 역시 발전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다도구들은 명대 다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편리해지면서 사라진 다구들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명대 다화 47명의 작가, 122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한 다화를 통해 명대에 음다도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다도구의 종류와 형태로 분류한 후 음다도구의 특징으로 남녀별 선호 찻잔, 실용성 위주의 찻잔과 차탁, 자사호의 등장. 다양한 형태의 풍로, 개완의 용도, 다양한 준비다구 등 총 여섯 가지로 분석하였으며, 명대 음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음다법, 음다장소, 차와 악(樂), 음다인물 등 총 네 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명대 음다도구와 음다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다도구의 종류는 크게 차를 마시기 위한 음다도구와 차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다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별 선호하는 찻잔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셋째, 잔의 형태는 현재의 찻잔의 형태와 비슷하나

잡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용성 위주의 차탁과 손잡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자사호가 명대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풍로가 존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개완의 용도가 차를 우리기 위함보다 찻잔의 용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풍로·연·수방 등 차를 마시기 위한 다양한 준비다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덟째, 명대의 음다방법은 차를 우려마시는 포다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차를 마시는 공간은 실내와 실외 구분이 없었으며 산수가 있는 곳에서 차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열째, 차를 마실 때 악이 함께 존재해 분위기 자체가 밝았음을 볼 수 있다. 열한째, 차를 마시는 인물의 성별과 신분에 제한이 없음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역시 현대인들에게 차는 기호성 음료로서 자리매김 하였지만 차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는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가 가지는 장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차의 본질적인 점에 맞추어 제대로 차를 마시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마무리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답습하려면 원형을 알고 현시대에 맞춰 변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명대 다화에 나타난 다구들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쓰이는 다구가 많았으며 시대가 변하고 편리해 지면서 사라진 다구들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의 역사성과 형식성, 그리고 문화성에 대한 이해이다.

첫째, 차의 역사성으로 차는 명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을 우리가 음용해 오던 대상이란 점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온 차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우리 정서의 바탕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벗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 그리고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차의 형식성은 차와 함께 하는 음다도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

를 음용한다는 것은 일견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제대로 된 차 음용을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고, 또 한참의 과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런 느낌의 시간, 형식의 과정이 차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명대의 음다도구는 그 형태의 변형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전수되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존과 전수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문화 즉, 차를 통한 문화성의 이해이다. 문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보존되어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차문화는 단순히 차 또는 차의 음다도구가 중심이 아닌 차와 함께 한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대 다화를 통해 당시의 음다도구와 함께 차 음용법, 차 마시는 공간, 차와 음악, 그리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국 차문화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의 차문화를 현대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차가 가져야 할 의미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는 오랜 시간 동양문화의 중심에서 문화적 발달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서면서 서양적 가치가 중심이 된 생활환경에서는 과거보다 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동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지금, 동양적 사상의 중심에 함께해 온 차, 그리고 차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명대 다화를 통해 당시의 차문화 대한 이해 및 당시 음다도구를 통한 차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대해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명대 다화의 작가들은 대다수 당대의 지식인들로서 자신의 생활을 기록

하였기 때문에 일부 지식인 계층에 의해 소비된 차생활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다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차문화는 지배계층의 차문화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일반백성들의 차생활, 차문화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곧 본 연구의 한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일반백성들의 차생활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동양 역사적 관점에서 명대 차문화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아쉬운 점인 동시에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차문화는 과거와 현재에도 자리 잡고 있지만 미래에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할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차의 가치를 알고 발전시켜 우리 또한 새로운 차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가 동양적 정체성을 찾는 방법의 하나이며 차를 통한 또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누노메초후 저·정순이 역, 중국각다문화사, 동국대학교출판부  
리우통 저·홍혜율 역(2012), 중국문화 차  
박원호 외 역주(2008), 명사식화지 ,소명출판  
오금성(1990), 명말.청초사회의 조명  
장준석(2002), 중국회화사론, 학연문화사  
장원(張源), 다록(茶錄)  
전춘년(錢椿年), 제다신보(製茶新譜)  
주고기(周高紀), 양선명호계(陽羨茗壺系)  
허차서(許次紓), 다소(茶疏)  
황일정(黃一正), 사물감주(事物紺珠)  
裘紀平(2014), 中國茶畫, 浙江攝影出版社  
呂維新·錢開信·王學進(1997), 農業考古  
劉軍麗(2012), 明代吳中文人茶畫創作与藝術境界探析, 農業考古  
北京外門出版社(2010), 中國茶文化  
安徽農學院主編(1986), 制茶學 ,中國農業出版社  
阮浩耕·沈冬梅·于良子,(1993), 中國古代茶葉全書, 杭州攝影出版社  
姚國坤(2004), 茶文化概論, 浙江攝影出版社  
夏敏(2016), 明代茶畫虛靜清雅的審美情趣研究, 福建茶葉  
何鑫·楊杰(2017), 福建茶葉

## <논문>

- 고연미(2016), 韓·中·日 차 그림(茶畫) 比較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린린(2014), 중국 명대 음다(飲茶)공간 연구 : 다화(茶畫)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2008), 다사전서를 통해 본 송과 고려의 차문화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진(2009), 16세기 다서에 나타난 炒製茶:茶錄과 茶疏를 중심으로, 한국학회지 15-2, 한국차학회
- 오명진(2012), 明清期 徽州商人의 茶文化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웨이즈강(2018), 중국전통 다문화(茶文化)에 나타난 생활방식의 특성연구 : 당, 송, 원, 명, 청나라의 다화(茶畫)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2018), 東洋 茶文化에 나타난 道家思想,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숙(2016), 중국 차문화사에서 본 음다법의 변화에 따른 다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호(2013), 明代 茶文化 양상과 文人의 審美意識, 중국인문과학
- 전태규(2012), 중국다관 문화의 변화와 특색,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정선(2018), 中國 飲茶文化에 따른 茶器 變遷,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미리(2016), 道教思想이 韓·中 茶文化에 미친 영향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王科本(2017), 明代文人茶畫特色及藝術美蘊, 黔南民族師範學院, 558000,  
377-378

何鑫·楊杰(2017), 明代茶畫藝術研究, 齊齊哈爾大學美術与藝術設計學院, 16100,  
292-293

###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ABSTRACT

## **A Study on the Tea Wear Centered on paintings of the Chinese Ming Dynasty**

Lee Hye In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tea painting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works of 47 people including Sungju, Tang Tara, Bungeong Myeong, and Ene Hyeon, representative artists of Ming Dynasty. A total of 122 painting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book with the paintings of the tea and the art museum which holds the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tea drinking tool and tea drinking method in Ming Dynasty are as follows. First, the kinds of tools can be classified into tools for drinking tea and preparing tea for preparing tea. Second, the sizes of mugs preferred by men and women are different. Third, the shape of the cup is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 cup,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how to hold it. Fourth, 'jasaho', it can be seen that it

appeared during the Ming Dynasty. Fifth, it can be seen that there existed a variety of materials and forms of 'a movable cooking stove'. Sixth, 'gaewan', it can be seen that the purpose of the relaxation was to use tea cups, not tea boiling tools. Seventh, you can see that there were various preparations for drinking tea such as 'punglo'·'yeon'·'subang'. Eighth, I could see that there was a 'podabeob', it's means drink after in hot water. Ninth, the space for drinking tea was indistinguishable from indoor and outdoor. In the tenth, when you drink tea, you can see that the music is present together and the atmosphere itself is bright. Eleventh, there was no restriction on the sex and status of the person drinking the tea.

Tea has long served as a companion to cultural development at the heart of Eastern culture.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role of tea is relatively reduced in the living environment where the Western value is centered while entering the modern age. However, now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Orient is being emphasized once again, it can be said that a time has come for a re-evaluation of tea and tea culture that have been at the center of Eastern ideas. And a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ast and present tea culture, there is a value that needs to be develop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situation. First of all, when the tea culture is being reexamin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tea culture as one of the cultures that can be enjoyed by all people who are not exclusive to a specific class or a certain age group. , A broad understanding of culture should be a premise, and cultural identity needs to be secured

through this.

In this paper, we wanted to examine the types,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sound tools of the Ming Dynasty, and analyze them.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works of 47 people, including 沈周, 唐寅, 文徵明, , 仇英, and , which are representative literary artists. 122 painting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cooperation with the museum, which houses books and paintings of flowe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ypes of sound tools and sound technique are largely divided into sound tools for drinking tea and preparation tools for preparing tea. Second, you can see that there was a preferred size of teacup by man and woman. Third, the shape of the cup is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 teacup,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ay it was held, so there was a practicality-oriented table and handle. Fourth, you can see that the self-reliance group has appeared on the list. Fifth, you can see that there were various materials and types of wind paths. Sixth, you can see that the use of the dog was more for tea than for tea. Seventh, you can see that there were various preparations for drinking tea, such as the wind path, kite, and water supply. Second, the tea-drinking method of yin-dae was found to have been performed. Ninth, the drinking area was not divided between indoor and outdoor, and it was found that the tea was consumed in the water. tenth, the atmosphere was bright because evil existed together when drinking tea. Eleven times,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the gender and status of tea drinkers.

A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culture, it is worth developing in a modern way. At a time when tea culture is being rebranded again, a wider understanding of the past's tea cultur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our cultural identity needs to be secured in order to present directions for the right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ea culture as a part of a culture that can be enjoyed by all people of a certain class or age.